

소크라테스가 권하는

잘 떠나는 기술

-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죠. 수명이 하루 남을 수도 있고 10년이 남을 수도 있지만,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고요, 그건 용감한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이는 일일 뿐이죠.
- 고대의 철학자들에게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그 사람이 실천해온 철학의 힘을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시간이었다.
-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죽은 뒤 영혼은 육신이라는 감옥을 벗어나 “순수한 영혼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” 천국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말한다. 그리고 심판의 장소로 가는데, 물질적인 것에 아직 애착이 남은 영혼은 과거의 삶을 잊어버린 채 환생하고, 철학으로 자신을 정화한 영혼은 “육신 없이 지상의 집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,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집에서 산다.”
-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‘좋은 죽음’이란 침착하고 기분 좋게 삶을 마치는 것이다.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과 함께 했던 좋았던 시간을 회상하고, 사후세계에 대해 불필요하게 불안해하지 않고, 루크레티우스가 말한 대로 “죽음은 가장 깊은 잠보다 더 평화롭다.”고 생각하면서.
-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“나는 하려고 했던 중요한 일은 모두 했어. 친구들과 친척들을 떠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는 것 같아. 그러니 나는 기쁘게 죽을 수 있어.”라고 말하면서 지극히 평온한 마음 상태로 세상을 떠났다.
- 죽음을 통제하고 ‘좋은 죽음(존엄성과 자주성을 표현하는 죽음)’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시도와 죽음의 속성 사이에는 늘 갈등이 존재한다. 죽음은 인간이 자기를 관리하게 놔두지 않는다.